

# 中共의 石油產業 (1)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

中共의 석유산업은 석탄산업과 비교해 볼 때 역사가 짧다. 석유산업의 역사는 일부 오랜 유전개발을 제외하면 中共정권 수립 이후 35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동안 석유산업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원유생산과 정제시설은 50년대 초기만 해도 거의 全無한 상태였으나, 현재는 산유량이 1억톤 이상으로 증대되었다. 광대한 中國대륙에서 석유탐사활동이 계속 전개되어 大慶, 勝利, 華北등 유전이 발견 또는 개발되었다. 또 北京, 上海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장이 계속 건설되고 있다. 최근 中共의 문호개방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中共교역의 확대와 함께 中共 원유와 석유산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日本의 감바라·다쯔, 사이또·다가시, 히라가와·요시히고, 야마노우찌·가쥬오의 共著인 「中國의 石油產業」(幸書房, 1985년)을 입수, 수회에 걸쳐 연재한다. <譯者註>

## I. 中共석유산업의 개황

### 1. 머리말

中共의 경제는 최근 문화대혁명에 따른 격동과 혼란으로부터 거의 안정을 되찾아 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등의 각 분야에서 근대화, 즉 「4개 근대화」의 실현을 향해 새로운 발전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82년 가을 제12회 당대회에서는 금세기말까지 공·농업 총생산액을 4 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채택했다. 이와 같은 경제전반의 현황 및 전망 가운데에서 中共의 석유산업이 갖는 의의와 역할을 매우 크고 중요하다.

문헌에 따르면 中共석유산업의 역사는 매우 오래다. 이미 前漢시대의 문서에 延安부근에서 석유가 채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후 宋代에도 석유에 관한 기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후 1949년의 中共정권 수립까지의 시기에는 근대적 석

유산업은 거의 육성되지 못했으며, 눈에 띄는 발전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中共정권 수립 당시만 해도 전국에는 甘肅省의 玉門老君廟, 新疆위굴 자치구의 独山子, 陝西省의 延長등 3개 유전과 四川省의 聖灯山, 石油溝 등 2개 가스田, 遼寧省 撫順에 2개 오일세일공장이 있을 뿐이었으며, 1904년부터 49년까지 45년간의 원유생산량은 연평균 6만5천톤,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43년의 경우에는 32만톤에 불과했고, 전국의 자원상황도 전혀 밝혀지지 않은 형편이었다.

1913년부터 15년에 걸쳐 中國의 부존자원을 탐사했던 美國 스탠다드오일의 2명의 지질학자들은 「中國의 대부분 지역의 지층은 그 종류나 연대로 보아 채산성 있는 석유가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지었다(「美國의회보고서」). 「中國은 석유자원이 빈약한 貧油國」이라는 것이 당시의 정설이었다. 따라서 中國은 석유수요의 약 90%를 메이저(국제석유자본)로부터 수입에 의존했으며, 연간수입량은 2백만톤 이상에 이르렀다.

당시 석유가 「洋油」라고 불리워진 것만 보아도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있다.

中共정권은 수립 당시 이와 같이 빈약한 석유산업의 기반을 그 유산으로 계승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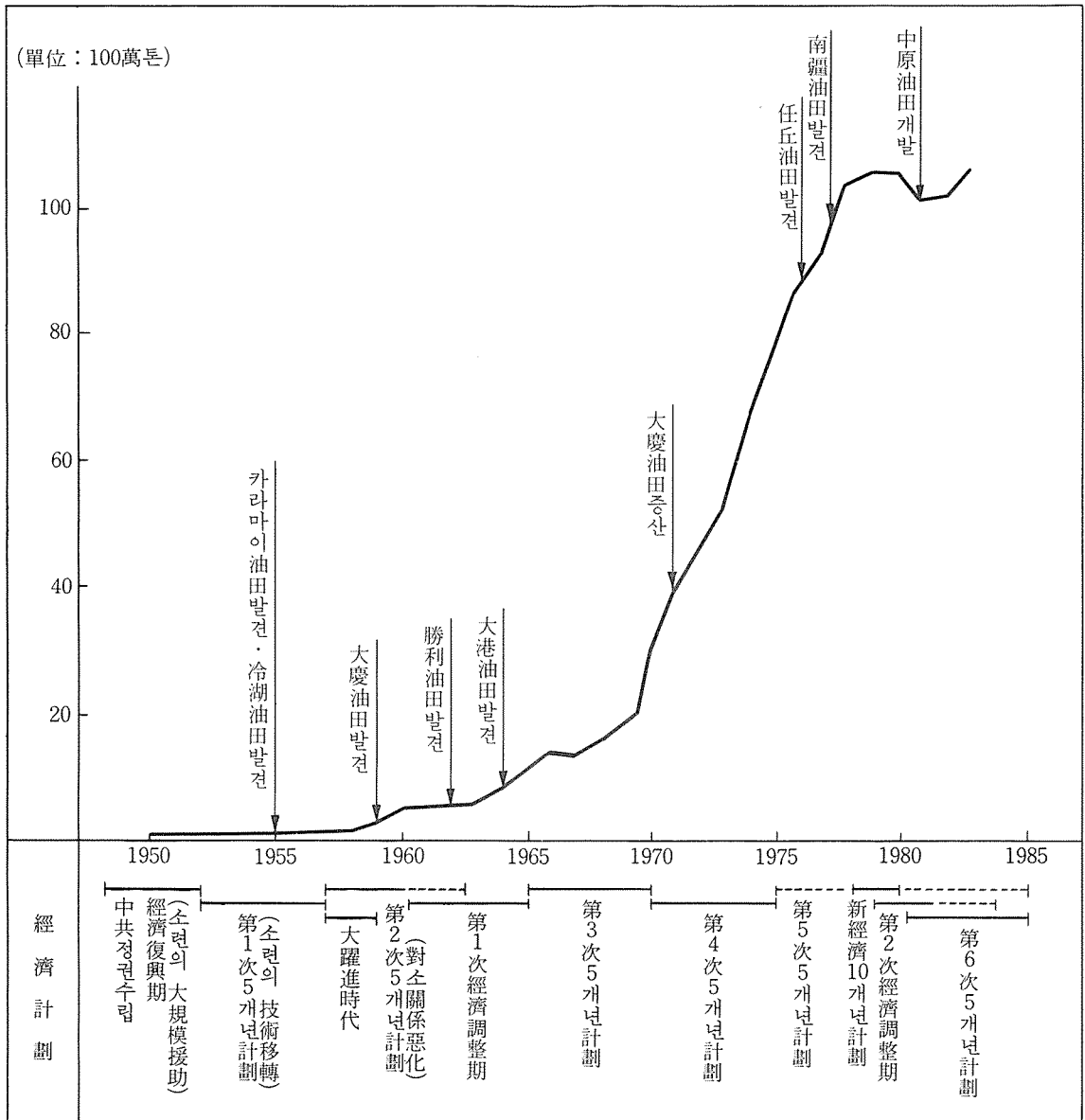
## 2. 中共정권 수립초기의 石油產業

정권수립 초기의 中共의 석유산업은 전반적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빛나는 역사에도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그 결과 70년대 후반부터 석유산업은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빠져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진은 국민경제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틀넥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中共석유산업의 부침은 어느 의미에서는 中共의 경제정책 전반의 성공과 좌절, 그리고

〈그림 - 1〉 中共의 원유생산 추이



끊임없는 동요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우선 中共정권 수립후의 최초 10년간, 즉 50년대의 석유산업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정권수립 직후부터 제 1차 5개년계획이 끝난 1957년까지의 시기는 中共경제가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中共이 경제건설에 있어서 「소련 모델」을 채용하고 소련원조에 의존한 이른바 「소련一邊倒」의 노선을 취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석유산업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旧中国으로부터 빈약한 기반을 계승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시기에는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제 1차 5개년계획(1953~57) 文書」도 석유산업을 中共공업중에서 특히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하고 석유개발에 대해서는 매우 공허한 방침밖에 제시하지 못했다.

제 1차 5개년계획 마지막 해(1957년)의 원유생산목표는 원래 2백만톤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로는 1백46만톤(이중 頁岩油가 60만톤)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석유부족은 대부분 소련으로 부터의 수입으로 메꾸어졌다. 연간수입량은 피크를 이루었던 1959년의 경우 원유·석유제품 합쳐서 3백29만 4천톤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석유산업이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中共당국은 주로 지질탐사, 탐광작업에 주력하는 한편 오일세일과 석탄을 원료로 하는 인조석유 생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석유자원탐사의 重點은 서북지구에 집중되었으며, 그 결과 新疆위글自治區의 카라마이 유전, 青海省의 冷湖유전이 발견, 그 개발에 착수했다. 한편 기존유전의 개량 인조석유공장의 발전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가 있다. 廣東省에서 茂名오일세일 연합기업이 설립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정유산업도 어느 정도 발전을 보았다. 정유산업 부문에서는 소련의 원조가 매우 큰 역할을 수행했다. 정권수립 당시 전국에는 甘肅省의 玉門과 遼寧省에 몇개의 소형 정유공장이 있을 뿐이었으나, 그후 새로운 정유공장이 잇따라 건설되어 1959년까지 그 수는 15개소로 늘어났다. 이중 소련의 원조로 56년에 건설에 착수한 蘭州정유공장은 소련의 최신 기술을 도입한 重點프로젝트로 58년부터 일부 가동에 들어갔다. 이 정유공장은 玉門유전의 원

유를 처리하여 각종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中國各地에 공급하는 석유산업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제 1차 5개년계획기간중의 일인데 中共에서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中共의 석유산업의 장래를 우려한 毛澤東은 저명한 지질학자인 李四光을 불러 中共은 앞으로 인조석유를 발전시키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천연석유를 개발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를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李四光은 지질구조에 관한 자신의 연구에 의하면, 中共에는 풍부한 석유매장량이 있으며, 특히 新華夏구조체에 속하는 3개의 함몰지대가 풍부한 석유를 매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 종전과 같이 탐사의 중점을 서북지구에 한정시키지 말고 동북의 松原평원 및 化북평원을 전면적으로 탐사하도록 건의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李四光의 卓見이 中共최대의 유전인 大慶유전 및 化북의 勝利, 大港, 기타유전의 발견과 개발로 이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中共의 석유산

〈表 - 1〉 中共의 原油·天然가스 生産추이

	原油 (萬噸)	天然가스 (億m <sup>3</sup> )		原油 (萬噸)	天然가스 (億m <sup>3</sup> )
1949	12	0.07	1967	1,388	14.6
1950	20	0.07	1968	1,599	14.0
1951	31	0.03	1969	2,174	19.6
1952	44	0.08	1970	3,065	28.7
1953	62	0.11	1971	3,941	37.4
1954	79	0.15	1972	4,567	48.4
1955	97	0.17	1973	5,361	59.8
1956	116	0.26	1974	6,485	75.3
1957	146	0.7	1975	7,706	88.5
1958	226	1.1	1976	8,716	101.0
1959	373	2.9	1977	9,364	121.2
1960	520	10.4	1978	10,405	137.3
1961	531	14.7	1979	10,615	145.1
1962	575	12.1	1980	10,595	142.7
1963	648	10.2	1981	10,122	127.4
1964	848	10.6	1982	10,212	119.3
1965	1,131	11.0	1983	10,607	122.1
1966	1,455	13.4			

〈資料〉『中國統計年鑑 1983』, 1983年은 國家統計局 發表(1984. 4. 29)

업은 自力更生과 번영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 3. 自力更生期の 석유산업

中共은 제1차5개년계획을 마치고 다시 제2차5개년계획(1958~62년)에 들어갔다. 제1차년도인 1958년에 毛澤東의 지도로 이른바 「大躍進」 운동을 전개하여 全中國을 열광적인 증산운동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극단적인 정신주의, 정치주의 때문에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대약진운동은 그때까지의 소련의 존에서 탈피하여 自力更生の 길을 모색하려는 中共지도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대약진운동의 실패는 中共경제에 심각한 파국을 가져왔다. 60년대의 최초의 수년간은 이러한 파국으로부터의 회복과 복구의 시기(中共에서는 이 시기를 「調整期」라고 부름)였다.

1965년이 되면서 조정정책은 일단 효과를 나타내 경제는 회복되었다. 그러나 毛澤東은 그 이듬해인 66년에 다시 새로운 정치운동 즉 「文化大革命」을 발동해 中共경제를 또 다시 큰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문화대혁명에 의한 경제적 동요와 혼란은 70년대까지 미쳐 이에 따른 정체는 1976년에 毛澤東이 사망하고 「4人組」가 추방될때까지 계속되었다. 毛澤東 死後 주석의 지위를 계승한 華國鋒은 문화혁명에 의한 혼란으로 中共의 국민경제는 「붕괴직전」이라고까지 언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침체에 석유산업은 自力更生の 길을 달려 기적적인 대 발전을 이룩했다. 1983년판 통계연감에 따르면, 1959년에 3백73만톤에 불과하던 원유생산량이 1965년에는 1천1백31만톤으로 증가했고, 다시 70년에는 3천65만톤, 75년에는 7천7백6만톤으로 급증했다.

이와 같이 현저한 석유증산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大慶유전의 개발에 성공한 결과였다. 中共의 최북단 黑龍江省에 있는 광대한 溫原지대는 「北大荒」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 極寒의 荒地에서 어려운 탐사활동을 계속해오던 석유굴착대의 1組가 드디어 석유를 채굴하는데 성공한 것은 1959년 9월 26일이었다.

이날은 바로 中共정권수립 10주년을 5일 앞둔

날이었으며, 또 中蘇관계의 악화로 석유기술자를 포함한 1천3백여명의 소련전문가들이 철수를 단행한 파국적 사태가 일어나기 8개월전의 일이었다.

이와 같이 긴박했던 상황 때문에 새로 발견된 유전은 「大慶」으로 명명되었다. 1960년 3월부터 이 유전의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 그해 6월에는 원유를 적재한 최초의 열차가 大慶을 출발하여 남쪽의 공업지대로 향했다. 당시의 문헌은 개발에 얽힌 고심담을 여러가지 전하고 있다. 이러한 문헌의 문장속에는 물론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당시 소련으로부터의 지원이 중단된 中共이 국민경제의 최대의 애로요인이었던 석유의 빈곤으로부터 탈피, 自力으로 前途를 개척했다는 자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中共은 1963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앞으로 석유제품을 자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1966년 毛澤東은 「농업은 大寨에서 배우고, 공업은 大慶에서 배우자」는 슬로건을 제기하고 大慶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현재 大慶유전은 연간 5천톤 전후의 원유를 생산하는 中共 최대의 유전인 동시에 세계에서 일류의 大유전으로까지 성장하고 있다.

60년대에 새로 개발된 유전은 大慶유전에 그치지 않았다. 中共을 貧油國에서 산유국으로 바꾸어 그 지위를 不動의 것으로 만들어 준 것은 大慶에 뒤이은 勝利유전, 大港유전의 개발성공이었다. 이 두 유전은 모두 華北퇴적분지에 속해 있는데 그 개발은 앞에서 언급한 지질학자 李四光의 이론이 실증된 결과일 따름이다. 우선 勝利유전은 山東省黃河유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1958년경부터 지질조사 시작돼 60년대 초반에 걸쳐 탐사활동이 이루어진 후 1963년부터 개발에 착수, 65년부터 생산이 시작되었다.

이 유전의 지층은 매우 복잡하여 단층이 많아 그 개발에는 많은 기술적 곤란이 뒤따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0년대초의 산유량은 약 1천만톤 정도까지 성장했고, 그 원유는 철도와 파이프라인으로 靑島로, 그리고 철도로 北京으로 수송되었다.

大港유전은 天津에서 동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臨海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는 해저까지 뻗치고 있다. 그 개발은 勝利유전보다 다소 늦었으며, 70년대 초기의 산유량은 연간 약 4백만톤 내

외로 추정되고 있다. 채굴된 원유는 파이프라인으로 天津에 수송되고 있다.

自力更生의 후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70년대 초기에 들어서면서 中共의 유전개발의 重點은 점차 육상에서 근해 유전으로 옮겨갔다. 그 제 1 보는 우선 遼東반도와 山東반도에 둘러싸인 渤海에서 시작되었다. 渤海는 그 폭이 약 8만km, 평균수심 20m 내외의 淺海로서 中共은 自國製를 포함한 4척의 굴착선을 동원하여 이 해역에서 초보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이상을 요약하면 中共석유산업의 自力更生기의 성과는 大慶유전을 비롯한 거대유전의 개발로 산유량이 급속히 증대됨으로써 中共은 貧油國에서 산유국으로 화려한 변신을 이룩하고 석유의 자급을 달성하여 面目을 일신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석유산업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개발과 생산의 중심이 서북지역에서 해안으로 옮겨지고, 또 공업중심지인 동부로 이동해 왔다는 점이다.

#### 4. 石油관련산업의 발전

60년대 이후의 획기적인 발전을 든다면 유전개발에 의한 원유생산뿐만이 아니었다. 원유의 증산은 당연히 이에 따라 정유산업, 석유화학공업등 석유관련산업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다.

中共의 정유산업은 50년대에 주로 소련의 지원에 의해 건설되었다. 1956년부터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을 시작한 蘭州정유공장이 당시의 重點공장이었으며, 이밖에는 撫順, 大連 등에 소규모 정유공장이 있을 뿐이었다. 大連정유공장은 당시 오로지 소련에서 수입한 원유만 처리했는데 이 공장에 中共産 원유가 처음 들어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된 것은 1960년 8월이었다.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의 지원이 중단되고 또한편으로 大慶유전의 개발과 생산이 본궤도에 들어섬에 따라 中共의 정유산업분야에서도 독자적인 발전이 시작되었다. 「독자적인 설계와 국산설비를 사용한 中共 최초의 대형의 근대화된 정유공장」(新華社 1974. 9. 18)인 大慶정유공장의 건설이 시작된 것은 1962년의 일이었다.

그뒤를 이어 자력갱생방식으로 北京 근교의 東方紅정유공장, 勝利석유화학공장 및 정유공장, 南

京석유화학공장, 天津제 1 석유화학공장과 기타 약간의 정유공장이 건설되었다.

中共은 60년대까지 감압·상압증류장치 및 열분해장치에 대해서는 소련으로부터 습득, 이를 기초로 발전시킬 수 있었으나, 그밖의 분야, 즉 접촉분해, 개질, 탈황, 디레이드·코킹 등의 기술분야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서 확립되었다. 1963년에는 이탈리아의 수남·프로제티社로부터, 65년에는 西獨의 루루기社로부터 각각 정제관련플랜트가 수입되었는데, 이들은 이상과 같은 기술분야를 확립시키는데 주요한 수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中共의 석유정제기술이 그 시기에 주로 자력개발로 발전시킨 사실은 긍정해도 좋을 것이다.

당시 정제능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없다. 「1973년의 정제능력은 65년 당시에 비해 3.7배 늘어났다」고 밝힌 공식자료(新華社 1974. 9. 18)가 있으며, 절대량에 대해서는 73년에 4천4백만톤, 74년에 4천7백만톤이라고 한 서방측의 추정(美國의회보고서) 정도이다. 다만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원유의 생산능력과 정제능력의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정제가 원유생산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태가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中共이 원유수출을 하게 된 배경과 관련시켜 볼 수가 있을 것이다(中共의 석유정제능력은 최근에 이르러 1억톤 이상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新華社 1984. 3. 12).

정유산업이 주로 자력갱생으로 발전해온데 대해 中共의 석유화학공업은 원래 기반이 빈약하여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西獨으로부터의 플랜트·기술 도입에 의해 건설이 추진되었다. 60년대 中共의 화학공업은 석탄화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中共의 자력건설에 의한 석유화학공업으로서는 1965년 말부터 생산을 개시한 上海의 高橋化工공장이 있다. 이 공장은 上海정유공장에서 나오는 廢가스를 열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을 생산, 이를 원료로 폴리 아크릴로니트릴, 低壓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공장이었다.

이와 전후하여 蘭州에서는 서방에서 도입한 플랜트를 기축으로 석유화학콤비나트의 건설이 시작된다. 그 주요내용은 루루기社의 分溜플랜트(에틸렌 年産 4만톤) 및 아크릴로니트릴 플랜트(年産 2만4천톤), 비카社의 폴리프로필렌 플랜트(年産 2

만4 천톤) 등이었다. 그러나 이 플랜트들은 文革期の 혼란 때문에 1969년에 들어와서야 겨우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0년대 초반의 문헌(北京周報 1971. 10. 26)은 「석유산업의 발전에 따라 석유화학도 점차 확립되어 갔다」고 기술했고, 또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몇개의 합성고무, 합성수지, 화학공업원료 제조공장을 건설, 일단 석유화학의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다」고 쓰고 있는데, 이것이 60년대 中共 석유화학공업의 대체적 발전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中共은 해외에서 대규모적인 플랜트·기술도입을 개시하게 된다. 주요도입플랜트는 3개의 석유화학 콤플렉스(上海석유화학總工場, 北京석유화학總工場확장부분, 遼陽석유화학섬유총공장), 重慶 부근에 건설된 비닐론종합공장, 13基의 암모니아·尿素플랜트 등이다.

이 석유화학플랜트들은 모두 日本, 프랑스, 美國, 네덜란드등 서방에서 수입한 것으로서 모두 국제적으로 당시 최고의 기술수준을 갖춘 것들이었다. 다만 이 플랜트들은 이미 70년대 초반에 계약되었으나, 실제로 건설된 것은 70년대 후반 이후에 가서 이루어져 새로운 근대화노선단계로 이어지게 된다.

## 5. 自力更生期の 石油政策

60년대부터 70년대 전반에 걸쳐 中共의 석유산업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두어 빛나는 성과를 이룩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과정에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것은 70년대 말부터 원유생산량의 증대나 정체상황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선 현재 석유생산의 정체는 국민경제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우선 70년대의 원유생산추이를 살펴보자. 1971년의 원유생산량은 3천 9백41만톤이었고, 그후 해마다 증가하여 79년에 피크를 이루어 1억 6백15만톤을 기록했다. 그러나 1980년 이후부터는 微減 내지 보합세를 이루어 80년 1억 5백95만톤(전년대비 0.2% 감소), 81년 1억 1백22만톤(전년대비 4.5% 감소), 82년 1억 2백12만톤(전년대비 0.9% 증가)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제 6차 5

개년계획(1981~85)에서도 85년까지는 거의 1억톤 내외의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 최근 中共의 원유생산이 정체국면을 맞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최근의 문헌은 그 주요원인을 60년대 후반으로부터 70년대에 걸친 석유정책의 파오에 돌리고 있다. 이들 문헌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文革期 이후 원유의 생산량만을 一面的으로 추구하고 필요한 탐사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採油와 매장량의 균형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孫尚淸은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석유산업발전의 역사에서 본다면 석유생산량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관건은 지질탐사先行을 견지하고, 증산을 위한 예비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특히 일정한 매장량을 손에 넣은 뒤부터는 맹목적으로 낙관적이 되어 개발採油에만 비중을 두고 탐사를 소홀히 해왔다. 그동안 석유산업의 투자는 주로 개발과 採油에 집중되고, 탐사를 위한 투자는 감소경향을 보여 왔다. 그 결과 「1965년부터 78년까지의 기간중 전국의 석유생산량은 9배 증가했고, 소비량은 10배나 증가했는데 비해 가체매장량은 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현재 원유채굴이 가체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어 현재의 채유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전注水개발에 주력하고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여 효율을 높이는 한편 油田생산량의 漸減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

또 다른 자료는 거의 같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석유산업의 주요 문제점은 이미 조사를 마친 예비자원이 부족하고, 매장량과 산유량의 균형이 깨지고 있으며, 老유전의 산유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현재의 생산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은 주로 10년간의 동란중(文革期를 가리킴) 산유량의 증가속도가 매장량의 증가속도를 웃돌았고, 또 1976년 이후 구역적 탐사의 전개가 불충분했는데도 증대한 돌파를 하지 않은채 생산량의 증대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老유전의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中共 최대의 유전이며 70년대 말에는 연간 약 5

천만톤을 생산하여 전체원유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던 大慶유전이 70년대말에 이미 절정을 지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무리한 採油방침이 계속된 결과로 보인다. 新華社보도(1980. 4. 30)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유전에는 低含水採油期(20% 이하), 中含水채유기(20~60%), 高含水채유기(60% 이상)의 3 시기가 있는데, 大慶 유전의 각 油井의 종합함수율은 54%로 전체적으로 中含水期의 후기에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일부 老油井은 이미 高含水期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하튼 中共은 이 기간중에 필요한 선행투자를 게을리한채 大慶유전을 소진시켜 70년대말부터 무리하게 산유량을 의식적으로 억제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둘째로 中共당국이 이 시기에 근거없는 낙관주의에 빠져 에너지정책에서 과오를 저질러 석탄에서 석유로의 전환을 경솔하게 추진, 지나친 석유의존정책으로 기울어 결국 석유부족에 박차를 가하게 된 점이다.

孫尚清은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우리나라에서는 안정된 에너지정책을 세우지 못한채 석탄, 석유, 천연가스, 水力발전의 균형을 뒤집어놓아 경솔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변화를 되풀이함으로써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70년대 초에 석유자원에 대한 전망이 매우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연료구성의 전환을 추진했다. 1973년에는 또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동시에 발전시켜 석유, 천연가스의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정책을 취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무려 2억원을 투입하여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의 일부를 석유를 연료로 하는 시설로 개조하고, 또 一羣의 석유專燒발전소를 새로 건설했다. 그 결과 석유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단지 연료로 불태워 버리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추계에 의하면, 현재의 석유專燒설비를 석탄전소설비로 개조하는 데에는 다시 30억~40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며 또 본래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발전소를 석탄전소로 개조하는데에는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세째로 석유증산에 의한 지나친 낙관주의는 경제발전전략에 중대한 과오를 가져왔고, 그것은 4人

幫의 몰락후에도 華國鋒정권의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 당시의 경제발전전략은 석유의 대량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로 서방측에서 대규모의 플랜트·기술을 도입,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70년대 전반에는 총24억5천만달러의 전례 없는 대량의 플랜트가 도입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역시 석유수출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제전략 위에서의 이와 같은 개방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지극히 안이하게 대량도입을 단행함으로써 후에 석유수출이 한계에 이르게 되어 결국 시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0년대부터 70년대 중반에 이르는 自力更生期の 中共의 석유산업은 팔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으나, 에너지정책의 과오로 여러가지 문제를 표면화시켰고, 그 영향으로 80년대의 中共경제가 다소 곤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 6. 近代化노선과 석유산업

1976년 9월 毛澤東이 사망하고 이어서 4人幫이 몰락하자 中共경제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종전의 정치주의, 정신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毛澤東「노선은 극복되고 생산효율과 경제합리성을 중시하는 근대화노선이 확립되면서 中共경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새로운 근대화노선은 결코 4人幫 몰락후에 곧바로 확립된 것은 아니다. 毛澤東의 지위를 계승한 華國鋒이 지도적 지위에 있던 시기(1977~78)에는 아직 毛澤東노선의 기본적인 방향인 高속적, 高指標로서의 생산의 「대약진」 방식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채 공업분야에서는 「농업은 大寨에서 배우고, 공업은 大慶에서 배우자」는 슬러건이 계속 정면에 부각되고 있었다.

석유산업에 있어서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정책과오와 이에 따른 생산의 정체경향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이 오히려 정신적 동원과 정치운동의 전개에 의해 증산을 이루자고 강조되었다.

1977년 4월 華國鋒은 大慶유전을 시찰할 자리

에서 「금세기내에 또 다시 10여개의 大慶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전혀 터무니없는 지시를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中共의 경제지도이념의 문제성을 나타낸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근대화노선이 정상궤도에 올라 선 것은 1978년 12월에 열린 黨제 3회중앙위원회총회 이후부터이다. 이 총회에서 中共지도부는 燈小平의 주도하에 中共경제가 많은 어려움과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생산의 量的 확대에만 집착하지 않고 조정과 개혁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노선에의 전환을 단행하게 되었다.

석유산업부문에서 이와 같은 노선상의 전환을 명확히 보여준 것은 1979년 11월에 일어난 해상굴착선 「勃海2號」의 전복사고와 이에 대해 가해진 엄중한 문책사건때였다. 이 사고는 심한 폭풍우 속에서 작업을 강행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많은 사망자를 냈는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석유산업분야에서 계속 극복되지 못한채 생산만 추구하고 현실 조건을 무시하는 「極左的」 요소에 대한 징계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中共의 석유산업은 근대화노선의 전개에 따라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本章의 내용은 서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원래 석유산업의 역사적 전개에 중점을 두고, 그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각 부문에 걸쳐 상세하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근 中共석유산업현황과 약간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현재 中共에는 1백80여개의 유전·가스田이 개발되어 있으며, 大慶, 勝利, 華北, 遼河, 新疆, 四川 등 16개소의 주요 석유·천연가스생산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中共의 원유생산량은 1982년에 1억2백12만톤으로 세계 제6위이다. 그러나 中共의 원유생산량은 1978년에 1억톤을 넘어섰으나, 그후에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1983년의 생산량은 1억6백7만톤이었다.

현재까지 건설된 大·中型 정유공장은 총34개소이며, 원유정제능력은 약1억톤으로 세계 제9위를 기록하고 있다.

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中共의 석유산업은 현재 산유량에 대한 매장량의 증대를 서둘러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당면의 석유정책은 석유자원탐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점은 해저유전의 탐사와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中共은 서방으로부터 자금과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최근의 新華社보도(1984. 3. 31)에 의하면, 南海, 南黃海의 42만km<sup>2</sup>의 해역에서 세계 13개국의 48개 석유관련회사에 의해 석유지진탐사가 실시되어 4백여개소의 유망한 구조를 발견했다. 이를 토대로 1982년 8월부터 제1차 국제입찰을 개시하여 9개국의 27社와 18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이에 앞서 渤海에서는 日本과 中共이 공동으로 석유탐사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中國海洋石油總公司의 秦文彩 總經理은 앞으로 해저유전개발계획에 대해 「80년대에는 주로 광범위하게 탐사를 진행하여 석유매장량을 구명하고, 90년대부터 대규모적인 개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新華社 1984. 3. 31).

물론 中共은 현재 해저유전개발 뿐만 아니라, 육상유전의 개발·증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각 유전에서 새로운 油井굴착의 성공과 원유생산량의 증대등에 관한 보도가 散見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 1984년의 원유생산목표는 1억8백만톤(전년실적대비 1.9% 증가)를 계획했는데 同年 1/4분기 실적은 2천7백6만1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5.7% 증가의 호조를 보였다(新華社 1984. 3.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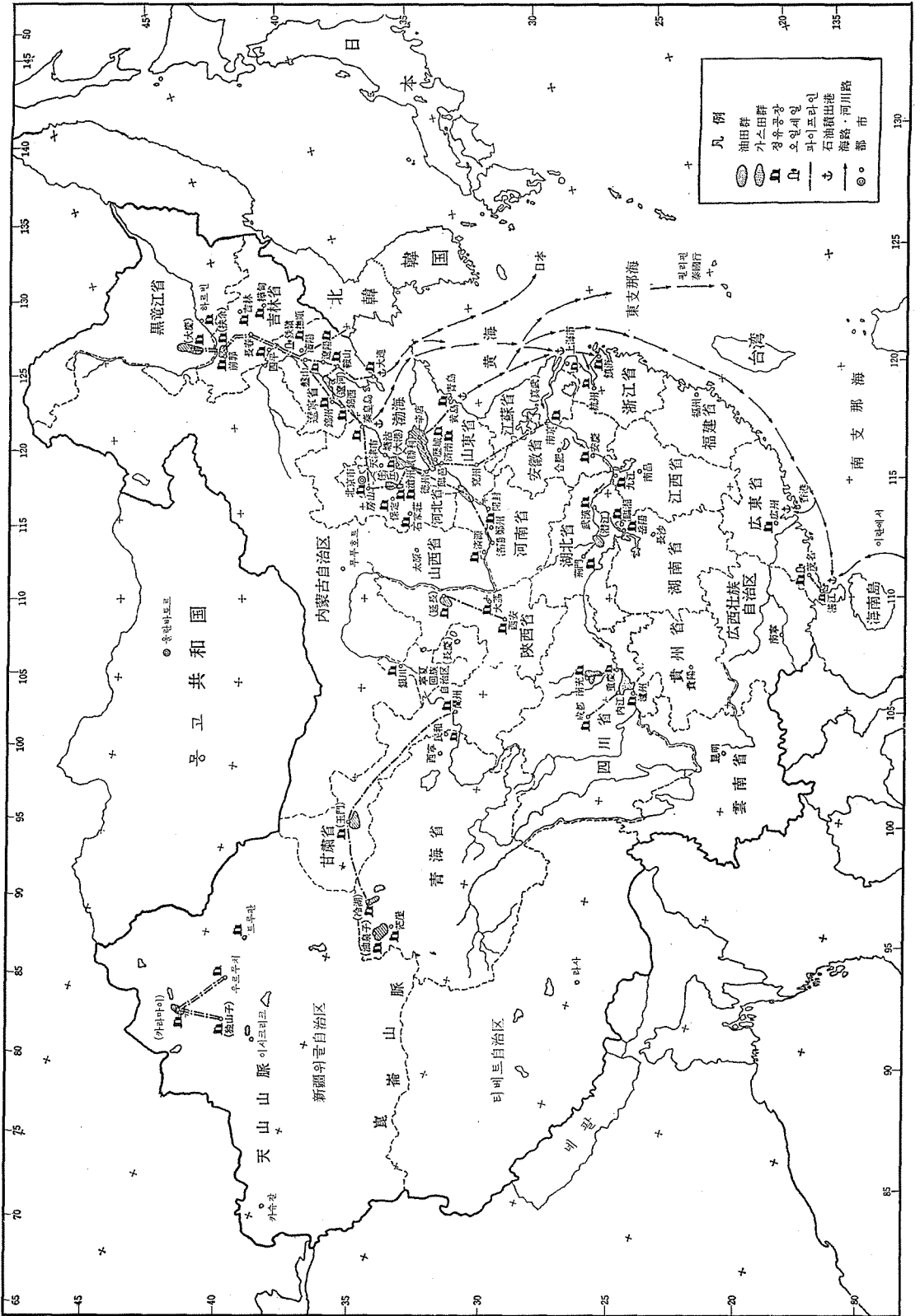
3) 中共은 현재 금세기말까지 공·농업총생산액을 4배로 늘린다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에너지생산을 2배로 늘리는 한편, 에너지이용효율을 2배로 향상시킨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현재 中共의 에너지개발의 우선 순위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발전, 원자력, 기타 新에너지의 順」이며, 「우선은 석탄개발을 중심으로 석유채굴에 집중하면서 앞으로는 重點을 수력발전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李鵬부총리 발언 - 新華社 1984. 3. 23).

이와 같이 석유개발은 석탄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있는데, 금세기말까지 원유생산량은 2배가 늘어난 2억톤으로 잡고 있다. 따라서 석유개발



(그림-2) 中共의 石油地圖



□ 共產圈石油產業動向 □

은 重點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데, 1984년의 1백23개 重點프로젝트 가운데 석유부문은 6개(석탄은 14개, 전력은 26개)이다. 이에 따라 산유능력은 신규로 7백70만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中共은 석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고 있으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석유개발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中共 석유산업의 장래는 결코 지나친 낙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계속>

〈그림-3〉 中共主要部の 石油產業圖

